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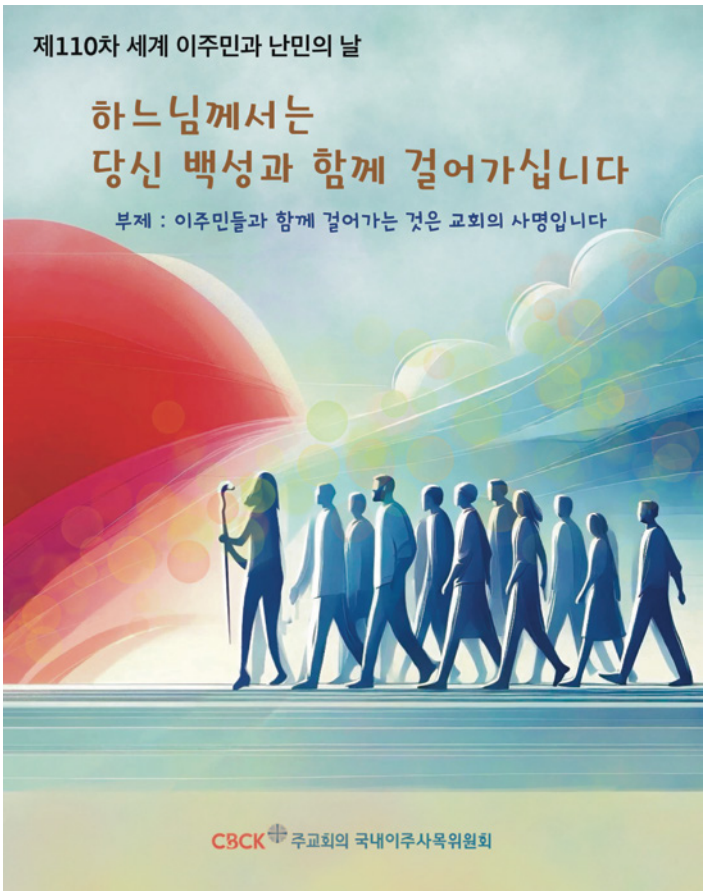
2024년 9월 29일
제2020호

주 임 신 부 : 배하정 다니엘
사 도 회 장 : 안민철 미카엘
사 무 실: 703 968 3010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 스: 703 968 3013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이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저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기도문 中〉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나해)

제 1 독 서 **민수 11,25-29** |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화 답 송 **시편 19(18)**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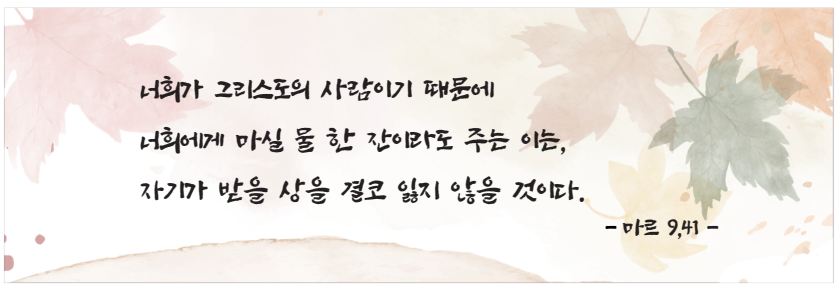
제 2 독 서 **야고 5,1-6** |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복 음 **마르 9,38-43.45.47-48** |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그때에 38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4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42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43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5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7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복음 묵상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제1독서인 11장에서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천막 주위에 모인 이들에게 모세의 영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영이 내리고 그들이 예언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영은 모세에게만 주어지고 그와 함께 있는 이들만 예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 자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예언자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 일이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요한과 예수님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보여 준 것과 같은 태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자기 무리에 속한 이들만 그 일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다 하여도, 또는 수고는 내가 하였는데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하여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모세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참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진출처:https://www.vaticannews.v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10월 29일은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1회기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주로 하느님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걸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봉사하는 은사들과 직무들의 풍요로운 대화로 소개됩니다"(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1회기「종합 보고서」[Synthesis Report], 도입).

시노달리타스의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교회는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 곧 '이주'의 길을 걸어 나가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나그네라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교회 헌장 49항 참조).

성경의 탈출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이주민의 이미지, 이 둘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주민들은 자주 억압, 학대, 불안, 차별, 발전 기회의 부족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광야에서 유다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이주민들도 길 위에서 많은 장애물에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역경과 질병으로 녹초가 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탈출기를 비롯하여 모든 탈출에 바탕이 되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 백성과 당신의 모든 자녀가 가는 길을 앞장서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주민이 하느님을 그들의 길동무, 구원의 인도자이자 구원의 닻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하느님께 스스로를 내어 맡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느님을 찾습니다. 낙담하는 순간에도 하느님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그들이 가는 길마다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그들의 희망을 둡니다. 사막, 강, 바다, 모든 대륙의 국경을 건너는 이주민들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성경, 복음서, 기도서, 묵주 기도가 함께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당신 백성 안에서 걸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를 통한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의미에서 당신 백성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생의 신비가 널리 퍼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주님을 만나 뵙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봉헌된 오늘, 존엄한 삶의 여건을 찾아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하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느님의 순례하는 교회인 저희는
고향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낯선 땅이 집이고, 모든 고향 땅이 낯선 곳입니다.
지상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는 하늘 나라의 참 시민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잠시 머물 이 세상 것에
저희가 매이지 않게 하소서.
이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저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소서. 아멘.

1 대부모 / 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 9월 29일(일) 오전 11:15 (A-1)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2 야외 울뜨레아

- 일시 : 9월 29일(일) 오전 11:30 – 오후 3시 (나눔터)

3 10월 목요 신심 기도회

- 일시 : 10월 3일(목) 오후 7:30
  (목요일 새벽 미사는 예정대로 있습니다.)
- 강사 : 김대중(베드로) 신부
- 기도회 : 찬양, 성체현시와 묵상, 미사

4 병자 영성체

- 일시 : 10월 3일(목), 4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5 10월 첫 토요 신심 미사 시간 변경

- 10월 첫 토요 신심 미사는 교구 황금희년 50주년 순례 행사로 인해 미사 시간이 오전 6시로 변경됩니다. 10월 첫 토요 신심은 6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6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0월 6일(일) 오전 11:30 (B-3,4)

7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 – 6학년
- 신청 : 10월 6일(일)까지 사무실 / 권용우 스테파노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8 연중 영화 상영(교육부)

- 일시 : 10월 11일(금) 오후 8시 (친교실)
- 영화 제목 : 오두막 (The Shack, 2017년)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327-1932

9 유아세례

- 일시 : 10월 12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소공동체 모임의 날

- 일시 : 10월 12일(토)
- 쉬는 교우들도 인도하여 소공동체 모임에 함께해 주세요.

11 페어펙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 / 구입 안내

-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Office
- 문의 : 홍의훈 요셉 연령회 회장 (703) 966-8206

12 성지순례 문의

- 본당 신부도 모르는 성지순례가 있는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순례를 하시더라도 **모집하고 홍보할 때**에는 **본당 신부의 허락**하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면 본당 신부로부터 허락된 순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본당 미래를 위한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10월 19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10월 13일(일) 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친교실/사무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인 $30 (아침 식사 제공)
- 문의 : 단체부 김 다니엘 (703)517-1574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 캔 등을 버리지 마세요.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체육관 사용 주의사항 •

- 체육관 사용 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본당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체육관 사용은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합니다.
- 사용 후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알링턴교구 황금희년 순례

- 일시 : **2024년 10월 5일**(토) 9:30AM – 2:30PM
- 장소 : National Shrine 성당 (D.C)
- 행사 일정 : 10월 5일(토) 8AM – 성당에서 버스 출발
  개인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9AM까지 National Shrine 성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 행사 시작 9AM, 기념 미사 11:30AM
- 세부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10월 2일**(수)까지 전달 예정
- 문의 : 배성훈 디모테오 (703) 507-2492

www.arlingtondiocese.org/golden-jubilee-pilgrimage/

제10대 배하정 다니엘 주임신부

본당 신부 임명식 미사

✚ 일시 | 10월 15일(화) 오후 6:30
✚ 집전 | 마이클 버빗지 교구장 주교님

본당 신부 부임 임명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신부님의 임명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9/29 이번 주	버크 구역
10/06 다음 주	애난데일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9월 22일

봉헌금	$ 8,448.00
교무금	$ 9,860.00
교무금(신용카드)	$ 6,190.00
감사 헌금	$ 105.00
온라인 봉헌	$ 1,420.00
합계	**$ 26,02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10월 3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10월 4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10월 6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2. **교회미술 2천년** : [제13강] 현대 교회미술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